

민주, '이재명 소환 통보'에 강력 반발

이재명 "야당 파괴, 불공정·몰상식 정권" 박홍근, "심히 유감...당 차원 대책 논의" 비명계 일부 "추사법리스크 가속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을 두고 정부와 검찰의 야당 탄압이 노골화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원히 숨길 수는 없다.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민주주의의 흐름을 숨길 수는 없다"며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겁주고, 고통을 줘도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고 국민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성남FC 의혹은 검찰이 수년간 탐탈 탐탈 하고 아무런 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민과 셀카 찍는 이재명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경정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

오늘 본회의 처리...639조원서 4조6천억원 감액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를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제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중권거래제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여의도 클럽

민형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은 22일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도 이에 동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했고,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훈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22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 촉구 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소병철 "착오 송금 반환기간 단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22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착오송금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사 등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